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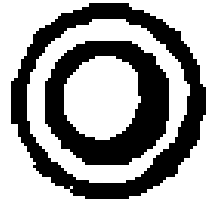
삼조승찬의 신심명(信心銘) 강의 일곱 번째

신심명(信心銘)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3대 조사인 승찬(僧璨; ?-606)의 작품이다. 신심(信心)은 곧 믿는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이 마음이 둘이 아님을 밝힌 것이 신심명이다. 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취하고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은 곧 대승불교의 요점이고, 선(禪)의 가르침이다. 신심명은 선종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시(禪詩)로서 초기부터 널리 읽히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연재하는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의 신심명 강의를 지리산에서 2007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행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붙잡아도 왜곡이요, 내버려도 왜곡이다

| 김태완 무심선원장 |

홀연 앞뒤가 사라지고
미움이 끊어지는 순간에
머물기를...(편집자 주).



◎ 신심명 계송 41

法無異法 (법무이법) 법(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는데,
妄自愛着 (망자애착) 허망하게 스스로 좋아하고 집착한다.

“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는데, 허망하게 스스로 좋아하고 집착한다.”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법을 생각하고, 이러면 법 위에 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고 합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자기 머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많이 듣는 말들이지만,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법에는 다른 법이 없는데…” 예컨대 “법이 뭐니까?” 하고 묻는데, “시계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무리한 거죠. “법이 뭐니까?”에 이미 다 드러난 것을, 다시 “시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죠. “법이 뭐냐?”라는 말에서 이미 다 드러났는데 다시 ‘법이 뭘까?’ 하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물 속에서 물을 찾고,

자기 머리를 달고서 자기 머리를 찾는 그런 꼴이 된다 말이죠. 그렇지만 “법은 말할 것이 없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듯이, 공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법을 드러내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는데,”라는 말을 들으면, ‘아! 그래, 지금 말하고 듣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고 법이지.’ 하고 이해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속은 여전히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즉각 온갖 망상이 다 사라지고 속이 시원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이해가 바로 망상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도 절대로 시원하게 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리키는 이런 설법을 듣는 것이 도움은 됩니다. 예컨대 집에 게으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의 방 더럽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예! 알았어요.” 하고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다음 날 보면 여전히 그대로죠. 다시 아이를 불러 “의 방 더럽더라.” 하고 말합니다. 역시 “예, 알았어요.” 하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말하다 보면 게으른 아이도 언젠가는 문득 ‘아, 참, 내 방이 더럽구나!’ 하고 깨닫고서,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을 두들기며) “이것이 법입니다.” 하고 말해도 마치 꿈속에서 말을 듣듯이, “응!” 하고 건성으로 듣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문득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막힘없이 통해 집니다.

막힘없이 두루 통하면, 보면 보는 게 전부이고, 들으면 듣는 게 전부이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차별 없이 전부죠.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가 전부이고...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면 마음이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라는 것은 마치 허공처럼 차별 없는 하나이지요. 이런 말도 스스로 한 번 확인해 보아야, ‘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공감을 느낄 겁니다.

지금 (손을 흔들어 보이며)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림) 매미가 “땡땡땡!” 하고 읊니다. 이걸로 전부입니다. “땡땡땡!” 이것 밖에 다른 법이 없죠. 억지로 표현하자면, 이 살아 있는 매순간의 모든 것들이 (손을 흔들어 보이며) 그대로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냥 이거죠.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이유를 헤아리거나, 또는 ‘어, 이거구나!’ 하고 분별하여 이름표를 붙이질 않죠. 이름표를 붙일 이유가 없지요. 너무나 당연히 그냥 이것(한 손가락을 세워 보이며)이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분별심(分別心)은 ‘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분별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분별되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뭐니까?” 하는 질문에, “이것이 시계입니다.” 혹은 “지금 아홉 시 십 분입니다.” 하고 답합니다. 이런 답을 듣고, ‘아홉 시 십 분이라는 말로써 법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이해하여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이렇게 “법”, “은”, “아홉”, “시”, “십”, “분”, “입니다”(한 마디씩 말하며 손을 흔들어 보이며) 한 마디씩 끊어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한 마디 한 마디(손을 흔들어 보이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손을 흔들어 보이며)가 그대로 전부이죠. 한 마디 한 마디(손을 흔들어 보이며), 하나하나(손을 흔들어 보이며)가 같은 것이고 전부(손을 흔들어 보이며)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잠자고, 꿈꾸고 하는 모든 경우에 온갖 것들이 전부 이것(손을 흔들어 보이며)입니다.

“도가 뭘니까?”

“이겁니다.”(손을 들어올리며)

“법이 뭘니까?”

“이겁니다.”(손을 들어올리며)

“우주가 뭘니까?”

“이겁니다.”(손을 들어올리며)

“세상이 뭘니까?”

“이겁니다.”(손을 들어올리며)

“도가 뭘니까?”

“매미소리입니다.”

“선(禪)이 뭘니까?”

“이것은 시계입니다.”

“부처가 뭘니까?”

“이것은 죽비입니다.”(죽비를 손으로 가리키며)

“마음이 뭘니까?”

“마이크입니다.”(앞의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키며)

다만 이것(탁! 탁! 탁! 탁자를 두드리며)이죠.

다만 이것(손가락 하나를 흔들어 보이며)이죠.

지금 다만 이것(손을 들어 보이며)뿐이죠.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어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어요. 다만 이것(두 손을 흔들며 보이며)뿐이죠. 이런저런 일이 분별되지 않으므로, 불이법(不二法)이라고도 합니다. 둘이 없고, 지금 이것(두 손을 흔들며 보이며)이 전부입니다. 언제나 이것(두 손을 흔들며 보이며) 뿐이고, 다른 둘이 없죠. 시계를 보면 그대로 전부이고, 죽비를 두드리면 그대로 전부이고, 책장을 넘기면 그대로 전부이고, 손가락을 올리면 그대로 전부입니다. 법에는 다른 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것은 전부 헛된 분별일 뿐이고, 이런 헛된 분별이 법을 가로막아 어둡게 만듭니다. 둘로 분별하는 것이 왜 잘못된지 잘 이해되지 않을겠지만, 실제로 분별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 내면에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사실 '번뇌'라고 이름 하는 것이란, 지금 당장의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언가 다른 더 만족스러운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뇌란 지금 이것(두 손을 들어 올리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것(두 손을 들어 올리며)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두 손을 들어 올리며)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두 손을 들어 올리며)이 전부이고,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다른 걸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동시에 번뇌도 사라지는 거죠. 지금을 싫어하지도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 목말라 하지도 않고, 좋아하고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이니 더 이상 다른 걸 원하지 마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번뇌가 사라진 해탈을 수용(受用)이라고 합니다. 수용이란, 지금 눈앞의 모든 것을 만끽한다는 뜻으로서, 지금 눈

앞이 전부이고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무엇을 찾게 됩니다. 수용하면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수용하지 못하면,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하기도 하지요. 인도의 모 수행자가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럴듯한 말입니다.

“법에는 다른 법이 없는데, 허망하게 스스로 좋아하고 집착한다.”라는 한 마디 말을 듣고, 즉시 분별과 생각이 몰록(단박에 깨달아) 쉬어지면, 그대로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서, 모두를 수용(受用)합니다.

◎ 신심명 계송 42

將心用心 (장심용심)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찾으니,

豈非大錯 (기비대착) 어찌 커다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찾으니...” 여름휴가나 여행철이 되면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나를 찾는다.’라든가, ‘마음이 뭘까?’라든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언뜻 매우 심오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매우 모순적인 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자기를 찾아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중생의 상황입니다. 분명히 지금여기 자기 자신이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이 자기가 진실한 자기가 아니라는 이런 모순

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 중생이 처한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나서 보면, 잃어 버렸을 때 보다 더 얻은 것도 없고 더 잃은 것도 없습니다. 더 많아진 것도 없고 더 적어진 것도 없습니다. 더 깨끗하게 된 것도 없고 더 더럽게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찾기 전에는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고, 자기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무엇을 찾는단 말인가?” 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슴 속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갈망하여 해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찾을까요?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 찾으면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찾지 않으면 언제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지 않을 수도 없는 여기에서, 다만 이렇게 가리키겠습니다.

“저 마당의 매미 소리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문득 확인됩니까?

“이것은 탁자입니다.”(탁! 탁! 탁! 두드리며)

갑자기 확 뚫립니까?

“이것입니다.”(손가락을 세우며)

홀연 앞뒤가 끊어지고 마음이 사라집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아,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번개처럼 통찰이 되거나 이해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이 만들어낸 헛된 환상(幻想)입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지 않을 수도 없는 이것은,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찾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모든 것이 정상(正常)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아니 본래부터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정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본래부터 정상인 여기에선 시간도 장소도 없습니다. 지리산에 있을 때나 부산에 있을 때나 서울에 있을 때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리산이 따로 없고, 부산이 따로 없고, 서울이 따로 없고, 오늘이 따로 없고, 내일이 따로 없고, 어제가 따로 없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주가 따로 없고, 자기 자신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이것(손가락 하나를 세우며)으로 확인되고, 이것(탁자를 툽툽 두드리며)으로 확인되고, 저 매미 소리로 확인되며, 저 푸른 하늘로 확인되며, 이 더운 날씨로 확인됩니다. 온 우주에 나 자신이 꼭 들어차 있습니다. 구석구석 나 아닌 곳이 없습니다.

마치 시험을 쳐서 학교에 입학하듯이, 이 도(道)에 들어오는 한 개 관문이 바로 이처럼 둘로 나누어진 차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부의 산을 다 올라왔느냐 아니면 아직도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냐 하는 기

준은, 언제나 차별 없는 전체이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공부해야 할 일도 없고 깨달아야 할 법도 없느냐, 아니면 여전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해야 할 일이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느냐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것을 맛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차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차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에 얽매이지 않으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낍니다.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고 미래를 상상하지도 않고 현재를 헤아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 신심명 계송 43

迷生寂亂 (미생적란) 어리석으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생기지만,
悟無好惡 (오무호오) 깨달으면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차별하여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거나, 또 반대로 고요함을 싫어하고 시끄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되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다르지 않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이것(두 손을 들어올리며)이고, 이것저것 차별이 없어요. 차별하면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 이것(손을 흔들어 보이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삼라만상 어느 것이든 이것(손을 흔들어 보이며) 아님이 없어요.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이라고

하지만,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을 어떻게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고
분별하겠습니까? 이것이라 해도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이고, 저것
이라 해도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입니다.

도(道)를 묻는다면 언제나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을 곧장 가리킵
니다.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두 손을 들어 보이며) 곧장 가리키고 곧장 통할 뿐입니
다. 통할 때에는 곧장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 것이지, 무엇이 어떻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이런 것입니
다. 중국의 선사들 이야기를 몇 개 하겠습니다.

조주(趙州) 스님이 이곳저곳으로 선지식을 찾아서 다닐 때의 이야기
입니다. 한 번은 임제 스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임제 스님은 마침
그때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고 있었어요. 조주 스님이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 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에 임제
스님은 “제가 지금 발을 씻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마) 조사
가 서 (인도)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은 곧 “도(道)가 무엇
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임제 스님의 이 말에 조주 스님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에 임제 스님이 말했습니다. “꾸정물
을 끼얹어야 하겠습니까?”

또 위산 스님이 위산의 주지로 부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산 스님
은 원래 백장 스님 밑에서 전좌(典座)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좌라
는 것은 절의 부엌일을 하는 사람인데, 절에서는 늦게 출가한 사람들이

그 소임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거사가 위산이란 산에 절을 하나 지어 놓고서는 주지할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백장 스님한테 “주지할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하니, 백장 스님은 “전좌가 주지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좌가 주지로 추천받아 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절 안에 퍼지자, 그 절의 만상좌가 백장 스님을 찾아와서 따졌어요. “제가 제일 만이인데, 저를 놔두고 후배인 전좌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백장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 한 절의 주지를 하려면, 남을 가리킬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겠다.” 그리하여 대중을 다 모아놓고,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냈어요. 공개적인 시험을 치는 거죠. 백장 스님은 손 씻는 물을 넣어 두는 물병을 앞에 갖다 놓고 만상좌에게 먼저 물었어요. “자, 이걸 물병이라 부르면 안 된다.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자 만상좌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걸 나무토막이라고 불러도 안됩니다.” 다음에 백장 스님은 전좌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이걸 물병이라 부르면 안된다.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자 전좌는 앞으로 나와 발로 물병을 탁 걷어차고는 말없이 자기자리에 가서 섰어요. 이에 백장 스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만이는 불합격! 전좌는 합격!” (웃음) “이걸 물병이라 부르면 안돼! 뭐라고 불러야 될까?”란 질문도 역시 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에 만상좌는 “나무토막이라고 불러도 안됩니다.”라고 답했는데, 아마도 만상좌는 법에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은 곧 만상좌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지, 법을 드러내는 말은 아닙니다. 위산 스님은 다만 발로써 물병을 걷어찼을 뿐입니다.

중국 당송(唐宋) 시대 선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등록』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바로 이것(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일들이 차별 없이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임을 보여 줄 뿐입니다. 저기 매미소리나 물병을 발로 차는 것이나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라는 말이나 차별 없이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입니다. 흘러가는 물, 두둥실 뜬 구름, 맛있게 먹는 밥… 하나하나가 다만 이것(손을 흔들어 보이며)입니다. 하나하나가 전체이니 전체가 따로 없습니다.

◎ 신심명 계송 44

一切二邊 (일체이변) 모든 두 가지 경계는,

良由斟酌 (양유짐작) 오직 헤아려 보기 때문에 생긴다.

하늘이 스스로 하늘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땅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바다가 스스로 바다라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려서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각각 다르게 알려집니다. 분별하고 헤아리니 ‘이것과 저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제각각 다르게 구분되는 것은 전부 우리의 분별에 말미암습니다. 분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삼라만상이 펼쳐집니다. 분별하고 헤아리니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입니다.

경전에 “천 부처, 만 부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계”에 있고, “마이크”에 있고, “죽비”에 있고, “종이 조각”에 있고, “손바닥”에 있고, 온 천지에 빈틈없이 뻗어 있습니다. 부처가 뭐니까? 법이죠. 법신불(法身佛)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바로 이것(손을 흔들며)이 부처입니다. “매미소리”, “흰 구름이 두둥실”, “나뭇잎이 흔들려” 이 모두가 부처입니다. 부처 없는 곳이 없어요.

여기에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다만 이것(손바닥을 흔들며)이란 말이죠. 법회에서 언제나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 하나를 가리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손(손을 들어 올리며)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동작(손을 들어 올리며)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모습(손을 들어 올리며)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순간(손을 들어 올리며)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을 가리킵니다.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은 곧 두둥실 떠가는 구름이요, 흔들리는 나뭇잎이요, 흘러가는 물이요, 반짝이는 별입니다.

인도의 어떤 분이 쓴 시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에도 “온 우주는 법성(法性)의 바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계는 하나의 참된 법의 세계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법의 바다 속에 있는 한 방울 물이라고 해도 좋고, 법의 바다를 헤엄치는 한 마리 물고기라고 해도 좋겠죠. 어디에서나 언제나 오로지 이 법(두 손을 들어 올리며)을 만날 뿐이죠. 온통 이 법(두 손을 들어 올리며)이 있을 뿐이죠. 이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일은 없어요. 분별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누고 이름 붙이는 것은 명백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죠. 여기(한 손을 들어 보이며)에 확실히 통하면, 오직 이 하나(손을 들어 올리며)가 명백할 뿐입니다.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이 명백하지 못한 까닭은 다만 분별하고 헤아려 보는 것에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심명』에서 “모든 두 가지 경계는 오직 헤아려 보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마음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것(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에 통하여 삼라만상이 차별 없이 명백해지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 신심명 계송 45

夢幻虛華 (몽환허화) 꿈같고 허깨비 같고 헛꽃 같은데,

何勞把捉 (하로파착)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눈앞에서 분별되고 이해되는 모든 세계, 모든 삼라만상이 꿈같고, 허깨비 같고, 헛꽃 같습니다. 분별로써 아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죠. 희망과 절망이 같은 것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에 통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에 통하지 못하면, 희망은 좋은 것이고 절망은 나쁜 것이며,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이며, 사랑은 좋은 것이고 미움은 나쁜 것이며, 지혜는

좋은 것이고 어리석음은 나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범부들은 그런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바로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곧 자신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희망적이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여기고 그런 것을 긍정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면, 즉시 그것이 진실을 왜곡시키고 나를 얽어매는 감옥이 되어 버립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붙잡을 것도 없고 내버릴 것도 없습니다. 붙잡아도 왜곡이요, 내버려도 왜곡입니다. 긍정하여도 왜곡이요, 부정하여도 왜곡입니다. 왜곡이란 곧 번뇌입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어리석게도 붙잡거나 내버리기에 골몰합니다. 이건 내 것, 이건 좋은 것, 늘 이런 식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주히 쫓아다니며, 자신의 중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로 불쌍한 일입니다.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으려면, 이것(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에 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한 손을 들어 올리며)에 통해야,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이어서 좋고 싫음이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이것(두 손을 들어 올리며)입니다. 아직 이것(두 손을 들어 보이며)이 명백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부모를 잃고 헤매는 미아(迷兒)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것과 저것을 따라 흘러 다닙니다. 어디에도 우리 자신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더 이상 자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부부나 자식도 자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친구나 애인도 자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도 자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지해도 자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직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만이 자신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인파로 가득찬 여름 해수욕장에서 부모를 잃고 두려움에 떨며 헤매던 어린아이가 문득 눈앞에서 부모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컸던 두려움이 한 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지요. 이것(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을 확인하면 바로 그런 안식(安息)이 있고, 안도감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어린시절 집을 나가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잣집을 다시 찾아오는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안식 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갖 즐거움과 의미 있음과 가치 있음을 추구하며 인생을 바쁘게 사는 이유는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에 통하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지식도 축적하고, 재산도 축적하고, 권력도 손에 쥐고, 온갖 쾌락도 추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 보려는 발버둥이지요.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노력으로 조금 덜 불안해지겠지만, 저절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족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속의 범부가 이런 불안과 불만족을 인식하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 없이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음을 들이대어 “당신이 아무리 권력이 높고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안 죽을 수 있어?” 하고 범부가 가진 두려움을 알려 줍니다.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손을 들어 올리며)에 통하면 삶을 걱정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에서는 삶도 쉬어지고 죽음도 쉬어지고 다만 아무 일 없는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 심심명 계송 46

得失是非 (득실시비) 얻고 잃음과 옳고 그름을,
一時放却 (일시방각) 일시에 놓아 버려라.

“놓아 버리자!” 하고 생각한다고 놓아지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놓으려면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에 통해야 합니다.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에 통하면 저절로 놓아져 버립니다. 얻고 잃음, 옳고 그름 등의 시비분별이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에 통하는 순간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모든 분별이 저절로 사라져 버리고 온 우주는 다만 차별 없는 이것(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입니다. 망상은 저절로 놓여지는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은 망상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세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말해 주지 않고, 다만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을 가리켜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줄 필요 없이, 단지 법만 가리켜 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쉽사리 공부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익숙한 습관에 따라 이런저런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병을 병으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며 자꾸 좋아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쫓아갑니다. 마치 집나간 아이가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들이 모두 방편입니다. 사실이 법을 가리키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 하거나, 이렇게(탁자를 툽툽 두드림) 하거나, “매미가 시끄럽게 웁니다.”라고 하거나,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고 하거나,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서 이 문제에 오랜 동안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곧장 가리키는 것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에 목말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바른 가르침을 찾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사람만이 이렇게(손가락으로 탁자를 툽툽 두들김) 가리키면 어느 순간 문득 확 열리며 통하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때가 되어 싹이 트듯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뜻을 세우고, 바른 가르침을 찾아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것(손을 흔들어 보이며)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는 저절로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거짓말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공부니까 좋다고 하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공부하기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 말이지요. 자신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님께 공부를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상(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 더 바람직한 공부가 없어요. 누구든 꼭 해야 할 공부입니다. 남한테 자랑하거나 내보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월받고 안식을 얻는 공부입니다.

『반야심경』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이 분명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탁자를 두드림)이 분명하면, 온 우주가 하나하나(손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빠짐없이 분명하면, 저절로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도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이 통하는 것은 오직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공부 안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간단한 사무적인 얘기만 하죠. 사무적인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끼리끼리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또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대중 웃음) 아마도 그렇게 해야 한 순간이라도 불안이 사라지는 모양이겠죠.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에 통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할 무엇을 찾을 일이 없고, 평소 전혀 아쉬움이 없단 말이죠. 온 세상이 나를 따돌려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옛날 스님들 가운데는 이거 알고서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초막 하나 지어놓고 지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것도 원하는 것이 없고,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어요. 이(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이(두 손을 흔들어 보이며) 보다 더 자유스런 것이 없어요. 이것(두 손을 들어서 보이며)이 분명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김태완** | 부산 무심선원 원장. 훈산 박흥영 거사의 문하에서 선(禪) 수행.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 취득. 저서로는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서장공부>, <선으로 읽는 금강경> 역서로는 <임제 100할>, <선문수경> 등이 있다. 현재 부산 무심선원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선을 지도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